

초상화로 만나는 우리나라 名人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이강철 외 지음
현암사 / 10만원



“털끝 하나만 같지 않아도 곧 타인이 된다(毫末不似便是他人)”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초상화를 그림에 있어 사실성을 중요시했다. 주인공 얼굴의 마마(면연두) 자국이나 검버섯까지도 그대로 그려 놓은 초상화는 오늘날 미술·복식·의사사적으로도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상화는 주인공의 인품과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초상화가 한 장의 그림만으로도 주인공의 생애와 지향했던 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고승 진영에서 스님이 일생에

왕·고승 초상화 260점 인물·복식 해설 덧붙여



걸쳐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어렵פות이나 감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은 우리나라 역대 왕과 관료, 고승의 초상화(사진은 휴경 스님) 269점에 인물 해설을 하고, 복식문화연구원의 교수진이 복식 해설을 덧붙여 펴낸 역사자료집이다.

이 책은 전 군사박물관장을 지낸 이강철(77) 씨의 평생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는 1968년 일본 덴리(天理)대학 도서관에 잡자고 있던 우리나라의 ‘명인초상화첩’을 당시 기시 유이치(岸勇)학장의 도움을 받아 원색으로 촬영한 뒤 돌아와 1972년 ‘한국명인초상대감’으로 펴냈다.

책에서는 초상화를 복식사적으로 살피면서 그 변천을 엿보고, 선현이 착용한 의복에 대해서 분야별, 즉 왕복·시복·상복·관복·승복·부인복과 기타로 세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부록으로는 우리 복식 문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글과 복식 용어를 수록했다. 여수령 기자

사리의美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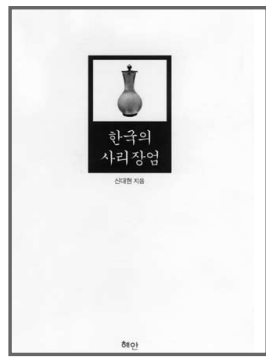
지난해 말, 큰 스님들의 잇단 열반으로 사리가 또 한 번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리를 무조건적인 경배 대상으로 여기거나 스님의 ‘법력’으로 평가하는 잘못된 시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사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고지순의 경배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한국의 사리장엄’은 사리와 불사리를 담은 여러 용기인 사리장엄에 대한 연구서다. 사리와 사리신앙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불교미술사 영역과 비교할 때 아직 그 성과가 적은 분야이기에 이 책이 갖는 의의는 적지 않다.

사리신앙은 기원전 480년 무렵,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자 제자들이 대비하여 그 사리를 8만4천 톱(粒, 사리를 세는 단위)으로 나누어 탑과에 봉안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사리신앙은 중국을 거쳐 7세기 무렵 신라에 전래되어 불교 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교의 신앙과 미술이 한 곳으로 집적되어 나타난 사리장엄은 불교공예 및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분야”라는 지은이는 “사리장엄은 공예



‘한국의 사리장엄’

신대현 지음
혜안 / 2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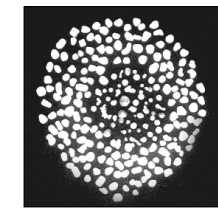
예술·종교적 측면에서 연구 국내 도입 경위·변천사 소개

적 요소 한 가지뿐만 아니라 건축·조각·회화의 전 부문에 걸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불교 교리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사리장엄에 대한 연구는 곧 당시 불교문화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된다는 것이다.

1~3장에서는 사리신앙의 정의와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사리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사리장엄의 발생지인 인도와 중국에서 불사리를 봉안하게 된 경위와 사리 봉안에 얽힌 일화를 곁들여 수필 형식으로 쉽게 서술했다.

4, 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리신앙이 도입된 경위와 사리장엄의 종류, 양식 변천을 소개한다. 마지막장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빠른 시기의 사리기인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을 주제로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을 다루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통일신라시대 공예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감은사지 동탑 사리장엄구(보문 1359호, 위)와 지난해 11월 22일 원적에 든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의 사리(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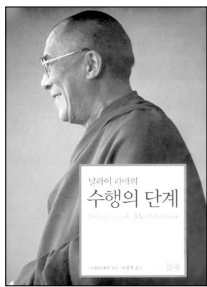
수행의 출발점은 ‘자비’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는 8세기 인도의 학승인 카말라시라의 저술 <수행의 단계>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설명을 옮긴 책이다. <수행의 단계>는 모두 3부작으로, 1권은 티송데첸 왕과의 수행에 대한 문답을, 2권의 수행의 요체에 대해, 3권은 보다 깊은 이론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는 이 중 2권을 주석한 것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보리심’과 ‘진실견(眞實見)’의 각성 촉구다. 달라이 라마는 ‘수행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카말라시라의 목소리를 빌어 ‘자비’를 수행의 최우선조건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수행은 처음도, 중간도, 그 결과도 자비이며 자비가 수행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목적을 올바르게 성취할 수 없다는

‘달라이 라마의...’

달라이 라마 지음 / 이종복 옮김
들녘 / 9천원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을 배우는 것은 허공만큼이나 많은 중생들을 위해 공덕의 불성을 성취하기 위한方便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고요한 맘으로 읽으세요

“부디 모든 개념을 떠난 고요한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주석자도 발견하지 못한 깨달음을 당신이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 이 경전을 익히고 수행해 나가면 무지를 깨치고 그릇된 생각을 뛰어넘어, 해탈의 기슭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행공동체 ‘플립블리지’를 이끌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틱낫한 스님에게 듣는 <반야심경> 강의, 오늘날 전 세계 불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 않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기존의 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은 1987년 봄, 틱낫한 스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콜로라도 등에서 반야심경을 강의한 내용을 책

‘틱낫한 스님의...’

틱낫한 지음 / 강욱구 옮김
장경각 / 8천5백원



으로 엮은 것이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던 만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관>(수자타 지음, 김문호 옮김, 김영민 그림, 화남, 9천원)=“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순간이 아닌 다른 순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 미국의 명상수행자 수자타의 명상지침서 <관(觀)>이 나왔다. 생활 속의 명상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다. 일러스트와 다양한 편집을 통해 경구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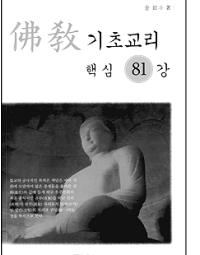


■<알몸 인연>(설산 스님 지음, 청어, 8천5백원)= 설산 스님이 소설 <알몸 인연>을 펴냈다.



에세이집 <알몸>과 시집 <알몸이야기> 등을 통해 ‘알몸으로 와서 일하고 살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해 온 지은이는, 원치 않는 인연으로 변화하는 주인공 설산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풀어가고 있다.

■<불교 기초교리 핵심 81강>(김현두 지음, 아나, 1만8천원)= <실상의 법>과 <반야심경 천부진리 해설> 등을 펴낸 김현두 씨의 불교 기초교리 해설서. ‘불성이란 무엇인가’, ‘사념처란 무엇인가’ 등 불교의 핵심 기초교리를 81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지은이는 현재 아나 법화연수원(http://ana.or.kr)에서 <묘법연화경>을 강의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완벽한 잠전법	우희 스님	좋은인연
3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4	법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5	백제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진 스님	조계종출판사
6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낫한	장경각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8	불출납승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덕산법향	원담 스님	덕승출판사
10	살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기사	불광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이문 전화: (02)737-0695

到·彼·岸·社·의·雪·域·高·原·시·리·즈

티베트 민족의 고난은

‘인류를 구하라’는 부촉

나라를 잃고 망명객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도는 티베트 민족,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온갖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원수마저 관용으로 대하면서...!

— 미국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 - 9.11 테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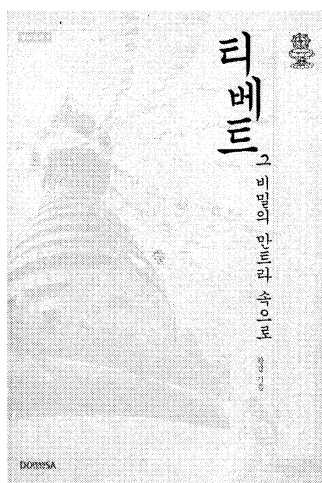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여기 티베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낱말이 밝혀 주는 고백서가 나왔다. 시인이자 월간 ‘문학과 예술’의 발행인이기도 했던 황엽은 6년 전 어느 날, 지금까지의 삶을 180도 바꾸어 티베트 행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승을 찾았고, 명에 따라 40만 배(拜)의 오체투지로 임문사를 마치고 그들의 정신세계로 목 안갔다. 이 고백서는 시인의 영감으로, 지성으로, 온 몸으로 써 내려간 티베트 정신의 원주사다. 단지 보고들은 여행기가 아닌 체험으로 직관한 티베트 사람들의 내면이다.

※ 티베트 관련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화제의 신간



글·황엽 / 신국판 / 384쪽 / 값12,000원

티베트의 정신과 자연을 소개하는 책

티베트 금강경

— 까말라시라 광석

●양승규 옮김 ●238쪽 · 값 9,000원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 포탈라에서 수미산까지

●글·김규현 ●416쪽 · 율령러 · 값 17,000원

지도의 공백지대를 가다

— 티베트 8만 Km

●글·박철암 ●384쪽 · 율령러 · 값 15,000원

“독서는 깨달음의 길”의 도서출판
DOPPIANSA 전화: 031-676-8700 전속: 031-676-8704
E-mail: dopiansa@kornet.net